

자본주의에 염증을 느끼다... 마르크스 입문서 '주목'

단 한편으로 사상의 모든 것을 파악 '마르크스는 처음입니다만' 출간

지난 1000년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1999년 영국에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아인슈타인(2위), 뉴턴(3위), 다윈(4위)을 누르고 마르크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마르크스 사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한국에선 이 결과가 의외일지 몰라도, 마르크스가 전 세계 인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사상가라는 점은 불변의 사실이다(2005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묻는 조사에서도 마르크스는 2위인 흄, 3위인 비트겐슈타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가 지구 곳곳에서 발전에 비례하는 폐해를 일으키는 지금, 마르크스의 이름이 다시 불리고 있다. 영국 BBC의 2009년 설문조사 중엔 '자유시장의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지 않고 보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27개

국 2만9000명이 답한 이 조사에서 '자본주의가 잘 기능하고 있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본 사람은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았다. 과반수가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심지어 '치명적 결함을 가진 자본주의 대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23%나 됐다. 오늘날 마르크스 사상이 재조명되는 건 인류가 자본주의에 염증을 느끼는 이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성과를 보상받는다는 자본주의의 원리는 의심받고,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점의 명제가 허상으로 여겨지게 됐다. 이에 다른 출발선에서 일찌감치 패배를 예상한 청춘들은 '흄수저'나 '벨조션'을 말하며 자조하지만, 부패한 가득관에 분노하면서 '내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는 생각도 나눌 줄 알게 되었다.

이런 꿈틀거림은 점차 확산할 것이고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할 시기가 왔다. 따라서 마르크스를 아는 것, 읽는 것, 나아가 실천하는 것이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론'을 위시한 마르크스의 저작들은 공장 이해하기 어렵고, 마르크스주의를 다룬 지금까지의 책들도 대다수는 초심자가 읽기에 까다로운 편이었다.

'마르크스는 처음입니다만'은 쉽고 재미있는 경제학 강연으로 유명한 이시카와 아스히로가 단 한 권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책이다. 내가 사는 사회의 구조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며, 사회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전망을 대변해 가르쳐주는 것이 '마르크스'라고 이시카와는 말한다. 홍상현 옮김, 220쪽 1만5000원, 나뭇잎스 /뉴스스



마르크스에 대한 서적 홍상현 옮김, 220쪽, 1만5000원, 나뭇잎스



한국전통문화재단 한식창의센터, 전통발효음식교육과정 진행나서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동철)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총4주간 전통발효음식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과 대학생,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식창의센터 시루방(조리체험실)에서 '전통발효음식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에선 우리나라 전통발효음식에 대해 직접 맛보고 만드는 체험을 통해 전통발효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할 계획이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백반분야 명인 지정자인 우순덕 명인이 강사로 나선다.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더덕장아찌와 가지장아찌, 깻잎장아찌, 연근조림, 고추맛탕, 강원장 고추장 등 다양한 전통 발효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방법은 전당 홈페이지 www.ktcc.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한식창의센터 시루방 281-1582

/정해은기자



군산예술의전당 내달 5일부터 정기대관 신청

군산예술의전당은 2017년 공연장·전시실에 대한 정기대관 신청 및 접수술을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대관 가능한 시설로는 대공연장(1200석), 소공연장(450석), 전시실 3개소 및 부대시설이다.

예술의전당을 대관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예술의전당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예술의전당은 2013년 개관 이후 공연·전시 창작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관 건수와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문화회관의 공연장 평균 가동률은 55.4%에 불과하지만 군산예술의전당의 경우 2014년에는 64.4%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2015년에는 메르스의 여파로

61.2%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개관 이후 최고의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군산예술의전당이 지역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무대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관료와 완벽한 공연시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군산예술의전당은 12월 10일 올해 마지막 기획공연인 '뮤지컬 빨래'를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 빨래는 2012년 일본과 2015년 중국에 각각 진출해 한국 뮤지컬의 힘을 세계에 알린 작품으로도 유명하며, 2005년에는 '한국뮤지컬대상' 작사상·극본상'을, 2010년에는 '더 뮤지컬 어워드' 극본상·작사작곡상' 등을 수상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작품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예총하림예술상 수상자 명단 발표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회장 선거현)와 (주)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은 '제20회 전북예총하림예술상' 수상자 명단을 21일 발표했다.

전북예총하림예술상은 매년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예술인에게 주는 상으로 10개 협회와 11개 시군예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번 대회의 심사는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전북예총10대 회장)과 김남곤 전 전북일보 사장(18,19 대회장), 황병근 성균관유도회전북회장(20대 회장), 김대식 하림그룹 부장, 선거현 전북예총회장이 맡았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백만 원,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4시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예총하림예술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 본상 부문: 유남구(65·건축가협회 건축), 김소영(63·국악협회 판소리), 문예가족(단체·문인협회 문학), 김광숙(71·무용협회 무용), 임병준(66·미술협회 서양화), 박영권(66·음악협회 성악)
- ▲ 공로상 부문: 정경선(47·연극협회 연기연출), 강병선(47·무용협회 무용), 안영(61·문인협회 시수필), 김은영(52·군산예총 피아노), 김순홍(64·미술협회 서예), 이용미(64·문인협회 수필)

문의는 전북예총사무처 255-2611. /정해은기자

정가보존회, '지봉 임산본 대상

제9회 전국정가경창대회' 개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봉 임산본 선생의 창법과 시조 정신을 기리기 위한 '지봉 임산본 대상 제9회 전국정가경창대회'가 (사)정가보존회(이사장 임산본) 주최로 오는 28일 오전 11시30분 전통문화회관(한벽극장), 전주한글문화관에서 열린다.

품격 있는 인문학적 전통과 예술의 향취를 내포한 정가(시조창, 가사, 가곡)는 우리 조상들의 고아한 미의식과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통문화유산이다.

임산본 선생은 원재 시조창의 명인 석암 정경태 선생을 사한 뒤 독창적 창법을 구사하며 시조창의 분류로서 백을 계승·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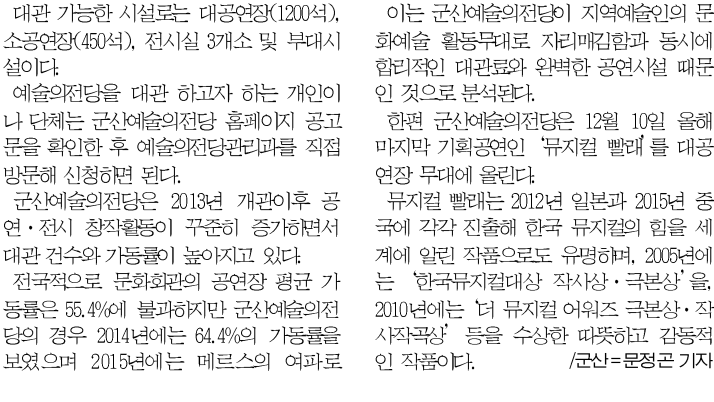
이날 경연은 대상부(완제사설·운집음·우시조·우조지름·억음지름), 국창부(중하리·각시조·우조지름·억음지름), 특부(남·여 지름시조), 갑부(사설시조), 을부(평시조) 종목으로 나뉘어 대회가 치러진다.

대상부 정연 1명에게는 전라북도지사상과 상금 300만원이, 최우수 2명에게는 전주시장과 상금 50만원이, 우수상 3명에게는 이사장과 상금 2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외의 수상자들에게도 이사장상 및 대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임환 집행위원장은 "대회는 공평성을 기해 참가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차량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기꺼이 경창 대열에 참여해 폐가를 거두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문의 010-5180-0614. /정해은 기자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 기획전 30일까지

영화를 보다 문화를 누리다 감동을 나누다! '2016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21일부터 30일까지 토, 일을 제외한 8일간 진안읍 마이골작은영화관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마이골작은영화관이 주관하는 '2016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6개 섹션, 18편의 영화를 1개관에서 총 32회에 걸쳐 상영한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두근대는 설렘을 담은 달콤하고 씩씩한 사랑이

야기 '두근두근 핑크빛 로맨스' 섹션에서는 <뷰티 인사이드>(NEW 제공)와 <비긴 어게인>, 믿고 보는 한국영화 대표 배우들을 한자리에 모은 '영화의 힘, 포커스 온 액터' 섹션에서는 <내부자들>을 통해 명불허전의 열연으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을, 2015 최고의 흥행작 <베테랑>을 통해서도 경찰 연기의 달인 황정민과 탐상 재벌 조태오로 연기 변신에 성공한 유아인을 만나본다.

문의는 전북예총사무처 255-2611. /정해은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1월 22일>

▷쥐띠
43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 기쁨이 가득한 운이다.
60년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후에는 잘 해결될 것이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84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전진하고 포기마라.

▷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61년생: 편법을 사용하면 주변에 알려지게 된다.
73년생: 평소 익숙했던 것이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운.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들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이니 화합을 도모.
62년생: 시고수가 있으니 운전은 삼가고 급속 원형도 삼가라.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이고 일확천금으로 끝내라.
86년생: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운.

▷토끼띠
51년생: 문서로 인한 금전지출은 흥이나 다른 투자나 투기는 삼가라.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매사에 주의를 요하라.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이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87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슬투기 따른다.

▷용띠
52년생: 이미 자신이 알기 전에 정해져 있던 것이다.
64년생: 쥐띠와 화합하여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88년생: 아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크게 하게 되니 매사를 냉정.
77년생: 지나친 일들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있으니 휘말리지 마라.
89년생: 걸으려는 서로 웃고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다.

▷말띠
54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마라.
6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좋은 결과.
78년생: 다른 사람에게 경쟁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운.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

▷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기운이 좋은 운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은 화.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다스려라.
79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르니 무리한 투자는 금하라.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원숭이띠
55년생: 손이래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중간중간 막히는 일이 발생한다.
80년생: 좋은 일하고 뽕 맞는겨, 나사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라. 지금은 소용없기 어렵다.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라도 대접하라.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정신이 맑지 않은 운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

▷개띠
43년생: 같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으니 내실을 다지는것에 신경써라.
58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나갈곳은 여기까지 많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니 좋은 결실을 맺는다.
82년생: 이성적 합계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다.

▷돼지띠
47년생: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기는 때이니 말을 골라서 하라.
59년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여성은 받는데 다니면 흥한일이 발생한다.
83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